



한국투자증권 '사랑나눔 주말 봉사활동' 진행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2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영유아 보육시설 구세군 서울후생원에서 '한국투자증권 사랑나눔 주말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4일 밝혔다. 한국투자증권 사내 봉사단체인 '참벗나눔 봉사단'이 주축으로 이날 구세군 서울후생원에서 노후벽면 페인트 작업, 미끄럼 방지 계단틀·계단 손잡이 설치 등 영유아 보육시설을 정비했다. /한국투자증권



CJ제일제당, 주한 외국인 리더들에 K-푸드 소개 CJ제일제당이 주한 외국인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CJ 블로썸캠퍼스' 투어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미국 농부부 참사관, 러시아 대사 내외, 캐나다 대사 내외 등 7개국 10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한국의 식문화와 K-푸드의 세계화 등에 대해 소개하고 의견을 주고 받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CJ제일제당

CJ푸드빌 N서울타워, 유방암캠페인 동참

N서울타워가 에스티 로더 컴퍼니즈 코리아가 실시하는 유방암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4일 밝혔다.

N서울타워는 지난 11일과 12일 N서울타워 전체를 핑크빛 조명으로 밝히며 에스티로더 컴퍼니즈의 유방암 캠페인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에 참여했다. 서울 중심에서 유방암 캠페인의 취지를 확산시키고 유방암 인식개선과 조기 검진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핑크빛 조명을 사용했다. 핑크는 유방암 캠페인을 대표하는 색이다. /박인용 기자



오리온, 4년 연속 베트남 고향감자 지원 프로젝트 오리온그룹은 베트남 현지 농가에 1억3000만원 상당의 농기계, 연구시설, 장학금 등을 기증하는 '베트남 고향감자 지원 프로젝트'를 4년 연속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한 베트남 고향감자 지원 프로젝트는 중소 규모 농가가 많은 베트남 북부 지역의 감자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진행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오리온

P&G '다우니', 한국품질만족지수 1위

생활용품 기업 피앤지(P&G)의 섬유유연제 브랜드 다우니가 2019년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섬유유연제' 부문 1위에 선정됐다.

한국품질만족지수는 한국표준협회와 한국품질경영학회가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와 제품(서비스) 특성을 반영하여 공동으로 개발한 국내 최고 권위의 품질만족도 종합지표다. 다우니는 제품의 성능 (75.28), 신

뢰성 (71.25), 안전성 (72.95) 등의 사용품질 항목 및 감성 품질 항목 총 9개의 조사 항목에서 모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섬유유연제 카테고리 1위를 차지했다.

1961년 미국에서 첫 출시된 다우니는 지난 2012년 '초고농축' 포물라로 한국에 첫 진출해 6년 만에 국내 전체 섬유유연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소상공인 위한 현실적 대책



이상현의 칼럼

한번 냉정하게 분석해보자. 이번 정부 들어 많은 자금을 투입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를 면밀히 통계로 들여다보았다.

집권 초기, 최저임금 상승을 통해 실질적 경제성장을 구현하겠다고 야심차게 추진했던 이번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실질 성장은 어떠한가?

2017년 2분기 근로자가구의 평균 근로소득은 408만6401원이었고 2019년 2분기 근로소득은 464만8329원으로 13.8%로 가파른 증가를 가져왔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상승한 임금이 소비시장 활성화와 더불어 자영업자들의 실질적 수익 증가로 나타났을까?

개인 자영업자의 소득을 의미하는 사업소득은 2017년 2분기 208만3744원에서 2019년 2분기 193만9611원으로 오히려 6.9% 하락한 걸로 나타났다.

더 심각한 통계자료는 소득분위별 근로자가구 이외의 사업소득은 1분위(-54.9%), 2분위(-22.7%), 3분위(-10.4%), 4분위(+2.9%)로 나타났다.

근로자 외 가구 사업소득이 전체로는 -6.9%로 집계됐다.

결국 고소득층인 5분위는 오히려 소득이 증가했지만, 나머지 1~4분의 계층의 사업소득은 크게 줄어들었다. 또한 전체 근로자의 가구의 가처분 소득은 1~3분위 기준 각각 21.5%, 16.1%, 5.1% 하락하는 등 감소폭이 크게 증가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비중은 71.0%이고, 2019년 8월 기준 자영업자 568만명 중 고용이 없는 자영업자는 403만명으로 인건비 부담이 없는 자영업자도 상당하다.

냉정한 분석이 필요하다. 도대체 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 물론 근로소득자와의 소득 격차는 최저임금이 원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전체 원인으로 치부하기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 이유 중 설득력 있는 원인으로는 창업 시장의 과열로 치솟는 임대료가 대표적 원인이다.

올해 2분기 소규모상가(100평 이하)의 임대료는 전국평균 1㎡당 2만4000원 수준이며, 서울지역은 5만4700원, 그중 도심지역의 약 30평 규모의 상가 임대료는 약 75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임대료의 상승이 자영업 시

장을 어렵게 하고 있으나 이보다 심각한 부동산 시장의 변화도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소위 잘나가는 상권 내 빈점포가 속출하며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창업자들이 창업 시 지원이나 대출받은 창업자금에 대한 이자 부담도 큰 수익 부족의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계형 창업자들의 대출잔액은 1인당 대출기준으로는 4799만원에서 5705만원으로 약 20% 정도 증가했다.

아울러 내수 시장의 위축이 소비심리 기준 108에서 97로 하락했고, 정부 정책이 자영업자를 위한 대한 대책과 집행의 일관성 부족도 원인으로 찾아볼 수 있는 항목들이다.

소비자들의 구매 성향과 구매 패턴의 변화도 원인으로 파악된다. 급격한 온라인시장으로의 유통구조의 재편과 함께 세대별 소비트렌드의 변화가 양분화, 고령화사회로의 급속한 진입도 전체 수익감소의 원인으로 파악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한국 사회의 중심이다. 그만큼 그들의 절박함을 함께 고민하고,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컨설팅학 박사)

우리금융, 시각장애인용 음성도서 지원

음성도서 340권, MP3 120대 시각장애인복지재단에 기부

우리금융그룹은 오는 15일 '흰 지팡이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 아동을 위해 음성도서 340권과 CD겸 MP3플레이어 120대를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에 기부했다고 14일 밝혔다.

흰 지팡이의 날은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정한 날이다. 흰 지팡이는 시각장애인이 길을 걸을 때 사용하는 흰 색깔의 지팡이를 말한다.

'우리(WOORI), 따뜻한 목소리' 사업은 전문성우가 참여한 고품질 음성도서를 음성파일과 CD로 제작해 전국 맹학교 및 전자도서관에 보급한다. 음성도서 청취용 CD겸 MP3플레이어를 제공해 시각장애 아동의 문화생활과 학습 기회 증진을 지원한다. 특히 우리



우리금융그룹은 음성도서 340권과 CD겸 MP3플레이어 120대를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에 14일 기부했다. 우리은행 사내 아나운서(사진)가 직접 녹음한 꿈과 희망의 메시지도 같이 전달됐다. /우리금융그룹

금융그룹 임직원이 직접 시각장애인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녹음해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에 전달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시각장애 아동의 경우 접자책보다 음성도서를 더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아동도서가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 사업을 기획하게 됐다"며 "이번 시각장애 아동에 대한 문화·학습 지원 사업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인사

- ◆하이투자증권 ◇지점장 신규 보임 △침산지점장 김형석
- ◆MBC플러스 △방송본부 디지털Biz센터장 박형민 △방송본부 디지털기획팀장 윤미진 △방송본부 STUDIO K팀장 황성규 △방송본부 show Biz팀장 서홍교 △방송본부 예능제작팀장 허무란 △기획경영본부 전략기획팀장 강정우
- ◆아시아투데이 △사회부 부장직무대리 겸 법조팀장 최석진
- ◆여성가족부 △장관 정책보좌관 이경숙
- ◆매일일보 △건설사회부장(부국장) 김영배

부음

- ▲강신영씨 별세, 강인석(KT평택Biz영업)·강정욱씨 부친상, 이화원(기아타이어즈 대표이사)씨 장인상 = 14일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16일 오전 8시30분, 장지 국립현충원
- ▲전명분씨 별세, 한상인·한승희·한영희·한선미·한은미·한기현(MBC 이사)씨 모친상, 안성호·김민태·손태섭씨 장모상 = 13일 오전 7시, 김천 태천장례식장 1층 2호실, 발인 15일 오전 8시
- ▲김복삼씨 별세, 하영호(SK증권 신사업추진부문장)·하봉수(전 한국전력 해외사업본부

- 장)·하연심(청주여상 교사)씨 모친상 = 14일, 서울 도봉구 한일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6일
- ▲서무임씨 별세, 조해훈(시인·전 국제신문 문화전문기자)·병훈(자영업)·정희 씨 모친상 = 14일 오전 2시 33분, 부산 시민장례식장 401호, 발인 16일 오전 10시
- ▲설순례씨 별세, 장명진(다스 생산기술센터 이사)씨 장모상 = 13일 오후 11시 56분, 울산영락원 202호, 발인 16일 오전 8시
- ▲심재일씨 별세, 구선모(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장)씨 모친상 = 13일 오전 6시 5분, 충북 진천 제일장례식장 1층 1호실, 발인 15일 오전 8시